

고흥군,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가구 살리기 앞장

국비 4억 추가 확보...선별적 위기가구 맞춤형 지원기준 완화·구비서류 간소화로 문턱 낮춰

고흥군이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군은 지난 10월 12일부터 40일간 접수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2,568건 가운데 지원기준에 적합한 2,295가구에 대하여 총

12억 3천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예산은 당초 국비 8억 3천여만원으로 인해 위기가구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흥군은 국비 4억을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국비만으로 순조롭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흥군의 긴급생계비 신청 건수는 전남 도내 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역의 평균인 1,520건을 월등히 앞섰다. 군은 사업초기부터 TF팀 구성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접수 및 상담을 위한 보조

인력 투입으로 현장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집중 홍보대상 발굴과 신청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당초 10월 3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2차에 걸쳐 연장하여 신청기간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지원기준 완화와 구비서류 간소화로 문턱을 낮춰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1차 긴급생계지원은 위기가

구 2,288가구에 대하여 11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며, 차후 11월 6일 이후 신청가구와 부적합 통지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은 가구에 대해 2차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서 고흥군은 지난 4월~6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1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61억 상당의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였으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5천 가구에 26억원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부분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좀 추하고 누락 없는 복지 행정 구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순천시,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수상

주민참여형 공간민주주의 실현 플랫폼 '영동 1번지' 생활문화 공간 변신 자리매김



순천시가 지난 25일 동아일보와 채널A에서 주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후원하는 '2020 대한민국 공간복

지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주민참여형 공간민주주의 실현 플랫폼인 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는

옛 승주군청의 활용방안에 대해 3년간 총 30여회의 토론회와 소통을 거쳐 옛 승주군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옛 건물을 재생하여 지역민의 소통과 다양한 문화·예술 및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2018년 6월에 개관한 영동1번지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연면적 1,473㎡)로 지하1층은 음악 연습실, 1층은 사무실, 전시실, 소규모 공연장, 2층은 순천시 청년센터, 3층은 동아리실, 학습실, 녹음실, 댄스연습실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70개의 생활문화예술 교

육프로그램 '만남강좌' 및 '특별강좌'를 개설해 총 14,762명의 인원이 참여하였고, 전시실, 동아리실 등 시설을 91,96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날 시상대에 선 이병덕 순천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속에서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 순천시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순천시민의 생활문화예술 참여율을 높이고 세대간·지역간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은 기초자치단체들의 공간복지 구현사례를 발굴하고 공간복지 정책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2019년에 제정됐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여수시, 공공비축미곡 매입 완료

1132톤 매입 완료...특등 비율 20% 달성·전년대비 9% 증가

여수시가 최근 돌산읍을 시작으로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해 소라면을 끝으로 건조벼(포대벼, 툰백배) 1천132톤의 매입을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결과 여름철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 병해충 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등비율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20%를 달성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새일미 2개 품종이다. 올해부터 매입품종 이외 품종이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품종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체 매입대상 농가 중 5%를 표본 추출해 각 매입 장소에서 시료 채취도 함께 진행했다. 공공비축미곡 포대별 매입가격은 가

마당 중간정산금 3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비로 환산한 가격으로 책정해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수매기간동안 현장을 방문해 농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관계부서에 대책마련을 지시하는 등 현장행정도 함께 펼쳤다. 권 시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과 연이은 태풍,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중한 결실을 일궈낸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광양용강도서관 '아빠 엄마 육아 토크 콘서트'

내달 5일 네이버 밴드 활용

광양용강도서관은 오는 12월 5일 코로나19 시대에 육아로 지친 부모를 위해 육아 전문가를 초청해 '아빠, 엄마 육아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실시간 채팅창을 활용해 질의 응답하는 등 참여자와 강사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강연은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위한 유쾌한 육아법'이라는 주제로

로 직장인 아빠, 엄마의 짝꿍이 육아법을 공유하고 초보 부모가 그동안 몰랐던 특별한 육아 비법을 전한다. 강연을 진행할 양현진 작가는 평범한 3남매의 아버지이자 '좋은 아빠 육아 연구소' 대표이며, '아빠 육아 공부', '아빠가 쓰는 육아일기' 저자이다. 고근성 도서관운영과장은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이 이번 강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육아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순천 미래 교육비전, 마을공동체가 핵심

순천 교육 비전쇼 및 국민참여단 의제 발표회 개최

순천시가 온라인으로 순천 교육 비전쇼 및 교육의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 순천시 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비전쇼에서는 ▲미래의 인재상 제안, ▲마을과 학교가 결합한 교육과정 지역화,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만드는 청소년 자기주도, ▲교육을 정책 통합하고, 시민 참여의 장을 여는 거버넌스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비전쇼에 이어서 진행된 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단 의제발표회에서는

그동안 참여단의 의제제안, 공개투표를 거쳐 발굴한 교육의제에 대해 발표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순천에서는 청소년 자치, 마을교육공동체, 돌봄, 생태교육, 교육체제 등 다양한 제안들이 모아졌으며, 그 중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선정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3E정책을 통해 지역의 생태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것 실현해 나가자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 활력, 문명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의정지구 상가 상인회









광산구